#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북적

## 150여종 2만2000여주 형형색색 장미꽃 만개… 관광객 발길 이어져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이 최근 장미꽃 개화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이 최근 장미꽃 개화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장미꽃 개화 기간 동안 150여종, 22,000여주의 형형색색 장미꽃이 만개해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치즈테마파크는 개화 절정기에 접어든 지난주에 3만8,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주말 하루 평균 1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설치한 대형 장미 터널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6월 초중순까지 장미꽃 절정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는 무료로 개방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장미 개화를 계기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봄에는 장미를 주제로 한 임실N치즈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봄에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할 전략이다.

심 민 군수는 "이달 초까지 장미꽃이 만개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미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미 꽃축제, 야간 조명 행사 등 더 아름답고 볼거리가 풍성한 장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故 조갑녀 명무 정신 기린다

## 남원시, 6일 추모 10주기 기념공연 '소명, 세대를 아우러서' 개최

남원시는 오는 6일 오후 5시, 남원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우천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소명, 세대를 아우러서'라는 주제로 故 조갑녀 명무 추모 10주기 기념공연을 개최한다.

故 조갑녀 명무는 한평생을 조선 후기 전통춤의 맥을 지켜온 예인으로, 그의 업적은 남원뿐 아니라 한국 전통예술계 전반에 깊은 자취를 남겼으며, 이번 공연은 그 정신을 기리고, 후학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밈으로써 예인의 삶과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조갑녀 명무의 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녀의 유작과 예술세계를 재해석한 승무, 월하정인, 장고춤, 민살풀이춤 등 총 7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무대인 '남원 조갑녀류 민살풀이춤'은 조갑녀 명무의 춤 철학과 남도 예술의 정통성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을 주관한 조갑녀 민살풀이춤 보존회 정명희 대표는 "10년간 스승님의 예술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예술이 꽃피는 고장 남원의 자부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폐의약품·폐농약 집중 수거 시행

남원시는 최우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 속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과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약국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수거해 왔으며, 빈 농약 용기는 영농폐기물로 분류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재활용했으나,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농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논밭 및 생활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토양과 수질 오염,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폐의약품 역시 수거 장소의 한계와 시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폐의약품 및 폐농약의 배출 실태와 수거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0월) 두 차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바른 배출 방법도 함께 안내, 폐의약품은 조제 알약, 가루약, 연고류는 그대로 수거함에 투입하고, 물약은 밀봉한 뒤 배출해야 하고, 폐농약은 남은 잔량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밀봉 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집중 수거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유해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유해 물질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로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실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

순창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 중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 '소생·긴급·응급·준응급'으로 분류된 응급환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 최대 15만 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이송일 기준 해당 연도 내에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650-5321)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이 4일 주요 사업장 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준공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 민선식 남원부시장,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남원시는 4일, 민선식 부시장이 관내 주요 사업장 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준공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복지·문화·관광분야 사업 중 개관을 앞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교룡산 둘레길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국악전용 공연장 △반다비 체육센터 △달빛어린이병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8곳ㅇ르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준비 상황과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선식 부시장은 "준공을 앞둔 주요 사업들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차질없는 개관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농기센터,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상 합동점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생안전팀, 축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교육지원청, 영양교사,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 협업, 친환경 쌀 및 잡곡 공급업체,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유정란 공급 업체 등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원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 확인, 위생 및 품질안전 상태,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등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위생관리 실태, 시설환경, 제품 표시사항, 기록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센터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지역산 식재료의 신뢰도와 급식의 질을 함께 높여나가 건강한 학교급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점검

임실군이 이른 무더위와 캠핑 인구의 증가로 하천 물놀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심 민 군수가 덕치면 섬안, 강변사리캠핑장 앞 하천 등 물놀이객이 몰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인과 인명구조 장비,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했다.

군은 휴가철 7월 14일~8월 31일(7주간)을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물놀이 관리·위험 지역 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 순찰 및 계도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곧 무더위로 하천 등 물놀이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